참고

TNP通信

2011/10/20

2011년 대일(台日) 과학기술포럼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현실과 미래~

지난 9월5일 (월) ～6일 (화) 에 대만의 The Regent Taipei Hotel에서 「2011년 대일(台日)과학기술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전 5월6일 (금) 에 개최되었던 「동일본 대지진 재해 시리즈 세미나」의 후속 세미나입니다. 3월11일의 동일본 대지진 재해 이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일본은 이제부터 어떠한 부흥책을 시동하여 재건을 목표로 할 것인가, 또한 인접국가들과 세계에 어떠한 계몽을 불러오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였습니다.
사실은 대만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몇 차례나 거대지진을 경험해 왔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막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자력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재해와 같이 거대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외의 힘을 집약해야만 합니다. 이번 대일(台日) 과학기술포럼에서는 대만과 일본간의 전문가의 힘을 집결하여, 대만과 일본간의 과학기술, 정치경제, 산업 등의 각 방면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당일의 진행상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 2011년 9월 5일(월)～6일(화)　■장소 : The Regent Taipei Hotel 연회장 3층
■주최 : 아동(亜東)관계협회 과학기술교류위원회　■협찬 : 경제부 기술처, 행정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제합작처
■집행 : 사단법인 중화경제연구원

【2011 년 대일(台日) 과학기술포럼】
대일(台日)과학기술포럼은 일본과 대만의 과학기술관련분야의 톱 리더가 서로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행정, 정책경험등을 제공함으로써 쌍방에 의해 공동인식을 촉구하며, 그에 의한 선견적인 연구 및 연구체제, 과학기술전략의 구상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과 일본간에 과학과 문화에 있어서의 교류 및 협력을 꾀하는 것은 양국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2003년 대일(台日)과학기술포럼 개최 이후 매년 수백명의 기업, 관청, 학교 관계자가 모두 모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왔습니다. 당일 회의장은 열기에 휩쌓여 일본과 대만의 단교 30여년이래 보기 드문 대규모의 하이레벨 회의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상호이해 및 협력관계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개최개요】

■9/5 (월) 1 일차

9 : 00～9 : 10　**<주최단체인사>**
중화경제연구원　이사장　**梁啓源**(Liang Chi-Yuan)씨

9 : 10～9 : 30　**<내빈인사>**
일본교류협회 타이페이 사무소　부대표　사미 유우스케씨

9 : 30～10 : 30　**<기조연설>**
단장 : 중화경제연구원**中**　이사장　**梁啓源**(Liang Chi-Yuan)씨
「3.11 의 충격과 일본의 새로운 진로」재단법인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　테라시마 지쯔로우씨

10 : 50～11 : 50　**<기조연설>**
단장 : 재단법인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　테라시마 지쯔로우씨
패널리스트 : 중의원 의원　하라구치 카즈히로씨, 중의원 의원 나카바야시 미에코씨
중의원 의원 타카무라 츠토무, 중의원 의원 아사오 케이이치로씨

13 : 30～15 : 40　**【의제 1】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방사선 방호**
단장 : 동경공업대학／국립성공대학　명예교수／특임교수　요시무라 마사히로씨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기술적 실태와 이후의 원자력」
에너지 문제 토론회/히타치 제작소　대표간사/전 이사・원자력 사업부장　하야시 츠토무씨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의 방사선 방호」내각관방／동경대학　전 참여／교수　코사코 토시소씨
「후쿠시마 사고후 일본방사선 방호대책」행정원원자능위원회 복사방호처처장　**李若燦**(Lee Ruoh-Tsann)씨

16 : 00～17 : 30　**【의제 2】에너지 전략**
단장 :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　부주임위원　**張清風**(Chang Ching-Fong)씨
「동일본 대지진 재해 부흥과 미래 에너지 선택지」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이사장　기타자와 코이치씨
「311 후의 일본 에너지 전략」환경 에너지 정책연구소　소장　이이다 테츠나리씨

18 : 30　**포럼 만찬회**

■9/6 (화) 2일차

9 : 00～10 : 40　**【의제 3】재해대응과 리스크 메니지먼트**
단장 : 아동(**亜東**)관계협력과학기술교류위원회　주임위원　**蔡清彦**(Tsay Ching-Yen)씨
「교토대학의 동일본 대지진 재해 대응과 리스크 메니지먼트」
교토대학　이사・부학장　오오니시 유우조우씨
「대만의 대규모 지진에 대한 방재・구재기술개발의 최근 동향」
국가재해방지・구조과학기술센터　주임　**陳亮全**(Chen Liang-Chun)씨
「대만의 데이터센터가 지역 백 업 센터(Back UP Center)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
Acer e-Enabling Data Center (Acer eDC)　부사장　**呉乙南**(Wu I-Nan)씨

11 : 00～12 : 00　**【패널 토론】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현실과 미래**
단장 : 아동(**亜東**)관계협회과학기술교류위원회　주임위원　**蔡清彦**(Tsay Ching-Yen)씨
패널리스트 : 이사장 **北澤宏一**씨, 이사장**梁啓源**씨, 이사・부학장**大西有三**씨,
처장**李若燦**씨, 전 내각관방참여/교수**小佐古敏荘**씨, 주임**陳亮全**씨, 대표이사**林勉**씨

梁啓源 (Liang, Chi-Yuan) 씨

테라시마 지쯔로우씨

기조토론

패널 토론

【코멘트】대일(台日)과학기술포럼은 매년 개최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재해를 테마로 한 포럼이었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지방에서 참가하신 분을 포함하여 400 분 정도가 참가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재해 이후, 대만으로부터 180 억엔의 의연금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일본의 각방면의 유명한 분들이 참가한 포럼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던 포럼이었습니다.

(주)TNP 파트너즈
(주)TNP 온 더 로드
(TEL) 045-470-8088
(FAX) 045-470-8090
이꾸미 ／요시오카